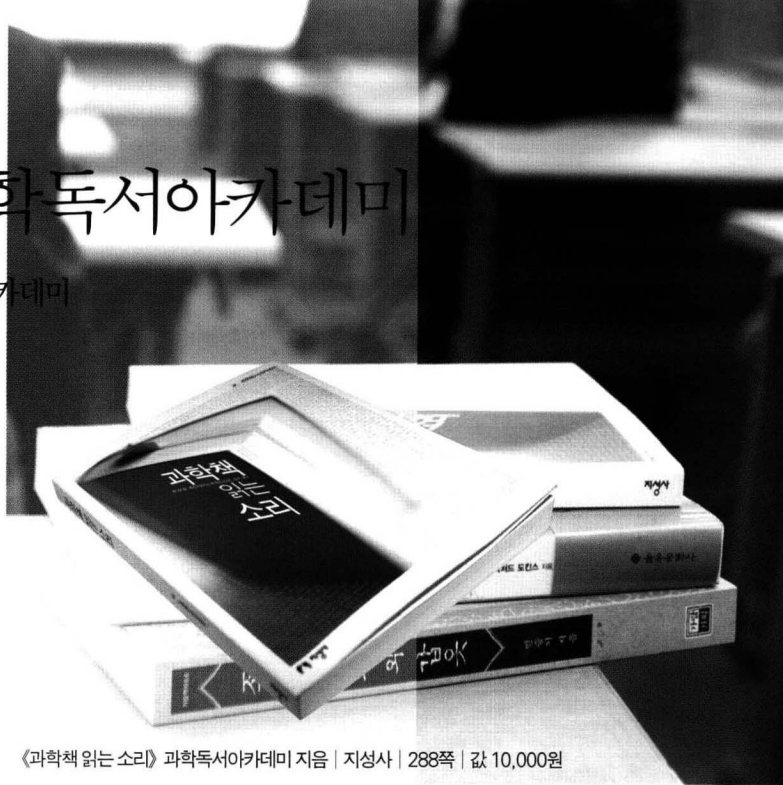


# 《과학책 읽는 소리》낸 과학독서아카데미

책으로, 과학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맹모궤암, 과학독서아카데미  
'국가발전의 기틀 과학기술,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할 대상'



《과학책 읽는 소리》 과학독서아카데미 지음 | 지성사 | 288쪽 | 값 10,000원

북스타트운동, 책읽는사회만들기운동본부,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독서운동 등 책을 읽게 하기 위한 모임과 단체들의 활동이 한창이다. 감각적이고 비주얼한 문화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올바른 책 읽기'의 실천이다. 과학독서아카데미는 이처럼 의미 있는 독서운동모임으로서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은 월례모임이 있는 날. 오후 6시 30분 즈음 을지로입구 하나은행 본점 강당을 찾는 사람들은 책, 그 중에서도 과학책을 읽자고 뭉친 이들이다.

운영위원회 이사장인 서울낫도 이용수 대표의 제안으로 결성된 과학독서아카데미는 한 달에 한 권씩 과학에 관한 전문서적과 과학소설 등을 읽고 토론한다. 이 모임은 '합리와 창조, 능력은 과학기술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만큼, 개인과 국가발전에 근간이 되는 과학을 바탕으로 한 책을 읽자'는 취지로 1999년 5월 21일 첫 회합을 가졌다.

명동과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을지로입구를 중심으로 장소를 섭외하던 중 '사원들이 퇴근한 후 강당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아준 한국전력문화원이 모임 장소로 결정됐다. 애초부터 많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었다. 책을 읽고 매월 모임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두세 명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처음 모인 31명의 회원이 현재 180여 명으로 늘었다. 장소가 협소해 하나은행이 제공해 준 곳으로 옮긴 지 올해로 5년째다.

그동안 교수, 시인, 은행장, 주부, 대학생 등 그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생겨났고 자체적으로 구성된 열 명의 운영위원회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재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들을 이끌고 있다. '과학의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사고, 토론, 문화의 장'으로서 전파문화세대들에게 책을 읽히기 위한 생각은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신중해야 하는 것은 주제도서를 선정하는 작업



이다. 일간지의 서평이나 자료를 참고해 후보도서가 정해지면 각자가 모두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를 거쳐 계절과 시류에 맞으면서 과학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책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첫 달 《사회생물학 논쟁》(사이언스북스)부터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창비),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돼라》(중앙M&B), 《기후의 반란》(공리), 《다 빈치 코드》(베텔스만코리아) 등 지금까지 장르를 망라한 흥미로운 도서가 토론됐다.

국내서는 저자가, 번역서의 경우엔 역자가 직접 나와 책에 대한 설명을 한다.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각종 영상자료들도 동원된다. 이를 시작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 토론, 회원들의 질의응답식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책을 읽든 읽지 않았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인터넷을 통해 모임을 알게 된 대학원생 김정현 씨는 "과학을 전공하면서도 관련된 책을 읽을 기회가 없었는데, 저자의 설명으로 책을 이해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임성빈 씨 역시 "토론을 통해 같은 책을 보는 여러 시각을 배울 수 있다"며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바랐다.

이렇게 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과학독서 아카데미의 전부는 아니다. 천문대, 원자력발전소, 바다목장, 제철소, 조선소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기술현장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테마여행'이랄 수 있다.

그동안의 성과를 책으로 내보자는 계획도 운영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후원을 아끼지 않은 출판사 대표, 과학관련 글을 쓰는 사람들 모두가 과학독서아카데미의 이름으로 한 팀이 되니 책을 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책에는 회원들이 홈페이지(www. sciencebook.or.kr)에 자유 주제로 올린 글과 함께 책을 위해 새로 쓴 글을 실고, 후반부에는 그간 다루었던 책 목록과 회원현황을 담았다. 이용수 이사장은 《과학책 읽는 소리》가 "보잘 것 없는 시작이었던 모임의 첫 성장기록"이라고 말한다.

단순한 친교모임이 아닌 과학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 만큼 회원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전문가들이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박사들이 대다수다. 아무리 회원자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일반사람' 들은 발을 들여놓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지만, 이런 염려를 염두에 둔 듯 토론이 시작되기 전 30분간 '친교의 시간' 을 마련하고 있다. 신입회원일수록 기죽고 소외되는 마음이 들지 않게 챙기고 보듬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가 소개하고 소개받는 과정으로 분위기에 익숙해지면 자유스러운 토론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모두가 '공짜' 는 아니다. 매달 주제도서를 제공받고 과학현장탐방이나 모임이 끝난 후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만 원의 연회비를 내야 한다. 비싼 듯해도 보통 책값이 만 원은 훌쩍 넘으니 열두 권의 책을 챙겨가는 것만으로도 '본전' 은 뽑는 셈이다. 게다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전문가들의 강의와 토론에 함께 할 수 있으니 무자본으로 '지식가게' 를 차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이사장은 "과학이 문학·실용서적에 문혀 관심 밖 영역으로 문혀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국가발전의 기틀인 과학기술은 우리가 끊임없이 파고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게 바로 교양과학책을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란 얘기다. 다름 아닌 과학독서아카데미가 지향하는 바다.

그래서 모임에 대한 애착은 그의 인생에서 으뜸가는 덕목이기도 하다. "침체돼 있는 과학도서 출판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배움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크죠. 또한 새로운 독서운동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도 모임의 의미는 깊습니다." ❖

취재 | 홍이현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 interview

이용수 이사장 인터뷰

과학은  
'오늘' 을 이해하고  
'내일' 을 내다보는 눈



과학독서아카데미는 그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던 계획이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서평위원으로 과학도서선정직임을 맡고 있던 시절부터 책을 읽히는 것이 책 선정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첫 모임이 있기 한 달 전인 1999년 4월 21일 과학의 날, 과학기술상으로 받은 천만 원을 책 읽히기 운동에 온전히 내놓기로 결심한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수상 자체에서 오는 보람도 있었지만 상금으로 독서모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렘이 더 컸다.

"독서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행동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충동·모방범죄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책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감각적인 인간 성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색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일상에서 비롯되는 사회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과학책을 읽어야 하는 것에 대해 그는 "사회의 '지금' 을 이룩해 낸 것들이 모두 과학기술 덕이다. 그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교양과학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문가들만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런 그에게 과학독서아카데미 결성은 오랜 꿈을 이룬 것과 같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면 책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제목만 봐도 좋습니다. 저자의 강의를 듣고 대화하면서 '그런 책이 있었구나' 혹은 '그 책은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입니다. 관심 있는 부분은 질문해서 알면 되고요. 무언가를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은 꾸준히, 그리고 조금씩 축적되는 법입니다."

그는 올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현대과학인물전 시리즈를 내는 것이다. 장영실 등 옛 과학자들에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최근 150년 동안 현대과학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의 숨은 공로를 주목하기 위해서다. 이젠 늙어버린 그들, 죽기 전에 적어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라도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2년 전부터 발로 뛰었다. 과학독서아카데미를 이끌면서 하고 싶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확신한다.

"모임엔 매달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세 달에 한 번은 나오기를 당부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밀린 책도 받고 과학독서아카데미 회원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회원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며 '보고 듣고 배워야 할 젊은이들이 손잡고 무리지어 와야 할 때' 라고 말한다.